

명예, 그리고 보람

오늘도 나는 작열하는 태양 아래 더욱 짙어만 가는 푸른 숲길을 걷는다. 완만한 길은 조금 속도를 내고 가파른 언덕을 만났을 때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무리 지어 핀 들꽃을 눈에 담고 간간이 들리는 새소리와 바람 소리에 귀 기울여 본다. 35년간 몸담아 온 공직생활로 몸에 밴 규칙적인 습관이 퇴직 후엔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산을 오르는 것이 나의 일상이 되었다. 산을 오르며 내 인생의 반 이상을 차지한 공직생활의 여정을 반추해 본다.

내가 처음 공직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우리나라가 도시화·산업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던 1985년도였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내가 부모님 눈에 성실하게 보였을 테고, 원리원칙을 중시하는 나의 성격을 잘 아시기에, 아들이 공무원이 되면 딱 맞겠다는 소박한 바람이 곧 나의 꿈이 되었던 것이다. 내 주변 친구들 중에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이는 가뭇에 콩나듯 그리 많지 않았고, 대부분 보수가 높은 사기업체를 선호하여 그 길을 선택하였다. 그 당시 임금대비를 보더라도 사기업체의 보수가 공무원보다 최소한 두세 배가 되는 실정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나는 돈보다는 명예와 봉사를 우선한다는 공무원 신분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공무원의 보수가 지금은 많이 현실화되었고, 심지어 청소년들에게 직업 선호도의 위치를 차지할 만큼 인기가 높아졌지만, 그때 당시는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달랐다. 그때 나의 공무원 보수는 8급 3호봉에 분기별 보너스와 상·하반기 정근수당을 제외하고 한 달에 154,500원에 불과했다. 저축은 고사하고 한 달 생활을 근근이 이어가야 하는 알뜰한 월급봉투를 받아들고 계속 이 길을 걸어가야 하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신규자 공무원 교육 연수에서 들은 교수님의 말씀을 상기했다.

“돈을 벌기 위해 공직을 택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책을 덮고 나가 다른 직장을 알아보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시오. 사업가는 돈을 먹고 살고, 군인은 사기를 먹고 살고, 공무원은 보람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선택한 길을 후회하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또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지키는 데에 큰 힘이 되었다.

더 이상 직업에 대해 흔들림이 없을 7년 차 되던 해의 일이다. 자녀들의 유치원비에 남들 다 가르치는 피아노 학원비 등 사교육도 시켜야 하고, 친가와 처가 대소사를 챙기다 보니, 아내가 아무리 알뜰하게 살림을 해도 수입은 한정돼 있고 지출 항목은 더 늘어나는 실정을 아는 나는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던 무렵이었다.

그 당시에 하수처리장 실험실에서 근무했는데, 수질측정 장비인 분광 광도기를 수의 계약으로 구매하면서 받지 말아야 할 리베이트를 40만 원씩이나 받는 실수를 저질렀다. 박봉에 늘 긴장하고 빠듯하게 한 달을 버텨가는 가정 살림을 떠올리며 ‘이게 뭐 그리 큰 잘못인가? 남들도 다 하는데.’ 하며 스스로를 변명하고 합리화시켰다.

하지만 납품업자가 돌아가자마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양심의 가책으로 마음이 무거워지고 불안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신앙의 양심까지 저버렸다는 자책감에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고 악몽에 시달리기까지 했다. 육체적 아픔은 치료하면 되지만, 부정할 일을 저질러 내 양심을 거슬렀다는 후회에서 오는 아픔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결국, 일주일 만에 납품업자를 불러서 받은 돈 전부를 되돌려 주었다. 그는, 내가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라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돌아갔다. 양심의 가책으로 나를 옥죄고 있던 사슬을 풀고 나니 그 해방감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잠시나마 40만 원으로 나의 양심을 저버려 부끄러움과 괴로움의 혹독한 대가를 치른 것이다. 이 경험은,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노라는 다짐과 공직자로서 옳게 판단하고 옳게 살아가리라는 신념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물질에 대한 객관적인 자세 유지와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확립되면서, 나 자신에게 만족하고 공직생활도 성실히 이어갈 수 있었다. 내가 꿈꾸는 깨끗한 양심의 이상적인 모습과 현실에서 무시할 수 없는 물질의 유혹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대조해 보면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래서 가진 것을 족히 여기는 자족하는 정신’이야말로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하고 인생을 여유롭게 만드는 원동력이라 믿었다.

사실 공직생활 중 청탁과 부정행위로 불명예스럽게 그 길을 저버린 주위 사람들이 있다. 내가 속했던 ○○시의 경우 이런저런 이유로 공직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동료직원들이 손꼽아 약 10% 이상이 된다.

공직생활 17년 차 되던 해 하수처리장 계장으로 있었을 때의 일이다. 당시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되고 또 하천의 부영양화 현상으로 하수처리장마다 고도 처리공법이 도입되면서 기존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하여 처리공법을 선정하는 과정에 두 개의 회사가 서로 경합을 벌이고 있었다. 둘 중 한 회사를 선정해야 하는 아주 민감한 상황이라 시장님의 지시에 따라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두 회사가 각자 주장하는 공법으로 간이 파이롯트 처리장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한 후, 결과를 비교하여 안정되고 좋은 방류수 수질을 얻을 수 있는 공법의 회사를 선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중 한 회사가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내가 없는 사이에 100만 원이나 되는 돈뭉치를 내 서랍에 넣고 갔다는 직원의 얘기를 듣게 되었다. 나는 추호의망설임 없이 그 즉시 전화를 걸었다.

“대가성의 돈은 받을 수 없으니 지금 다시 돌아와서 당장 현금 뭉치를 가지고 가세요.”하니,

“그걸 가지고 무얼 그러십니까? 나중에 잘만 되면 그것의 몇십 배는 더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이었다.

“지금 바로 와서 가지고 가지 않으면 당신네 회사에 불이익을 주겠소.”라고 화를 내며 언성을 높이니 그제서야 내 의지를 알았는지,

“지금은 다시 돌아가지 못할 장소에 와 있고 또 지금 바로 출장 차 중국을 다녀와야 하니 나흘 후에 다시 돌아와 꼭 회수해 가겠다”라는 약속을 받고서야 전화를 끊을 수 있었다.

약속은 그렇게 했지만, 돈뭉치를 가지고 있는 4일간은 마음이 편하질 않았다. 혹시 그사이에 감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문제라도 삼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접을 수가 없었다. 뉴스에서 공무원의 비리 소식이라도 나오면 신경이 날카로워지면서 나에게 돈을 주고 갔던 사업자가 원망스럽고 돈뭉치가 혐오스럽기까지 했다.

드디어 사업자가 와서 돈을 회수해 가니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며칠간 떠안았던 불편하고 괴로웠던 일을 보상이라도 받듯 사업자에게 따끔한 말을 해주었다.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번 일은 없던 것으로 하겠지만 또 그러면 검찰에 고발하겠노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당시 나의 봉급은 약 100만 원이 조금 넘는 정도였다. 그런데 아무 노력 없이 업자로부터 1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받고서 망설임 없이 바로 돌려주려고 판단한 것은 10년 전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직생활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나의 마음가짐이나 행동에 느슨함이 생길까 봐 늘 나를 돌아보고 긴장감을 놓지 않았다. 항상 청렴하게 시민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보다 못한 이웃을 위해 봉사하자는 마음으로 공직생활에 임하다 보니, 주변에서 그것을 알아주어 공무원으로서는 가장 명예롭다는 청백봉사상 대상에 추천되었다.

어느 날 실사 팀원들이 집에까지 찾아와 이곳저곳을 살피더니,

“동장 32호봉이면 23평 아파트가 아니라 32평 정도의 아파트에 살아야 하지 않

나요?”라고 하기에,

“저라고 왜 넓은 곳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공무원 혼자 벌어서 자녀 2명을 대학까지 보내는 것조차 그리 쉽지 않습니다.”하니

“역시 청백봉사상을 받을 사람은 무언가 다르네.”라는 얘기를 서로 나누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선 시대 황희 정승과 맹사성의 청백리 정신을 이어받은 청백봉사상을 받은 것은 내가 속한 ○○시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서, 내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시의 명예도 높일 수 있어 큰 보람으로 남는다. 나라의 녹을 먹는 공직자로서 명예를 존중하고 본분에 충실했음을 인정받았다는 보람으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 ‘공무원은 보람을 먹고 살아야 한다.’던 교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는 듯하다.

1년 전 공무원 정년퇴직을 한 나는 내 삶을 정산해 보았다. 자녀 둘을 대학까지 마치고, 지금도 23평 아파트에 살면서 자동차 한 대와 연금뿐이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지만, 정직하고 떳떳하게 살아온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 큰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다시 공직생활로 돌아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린다고 해도 돈이 아닌 명예를 택하리라는 생각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기에, 나의 삶에 후회는 없다.

산 정상을 돌아 내려오며, 오를 때 보지 못했던 풀들의 색감과 다양한 나무들의 조화로운 풍경을 본다. 산길을 오르고 내려오듯 삶의 굽이진 여정을 돌아보며, 수많은 직업 중에 정직을 최우선 하는 공직자의 길을 걸어왔다는 자부심과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고 깨끗하게 마무리했다는 자긍심으로 발걸음이 가볍다.